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사정

구소련이 표면적으로 확일적이고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경제·문화적으로 15개의 다양한 나라로 나뉜 것은 새로 만들어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이하 CIS)의 구성요소들간에 잘알지 못하고 있던 여러부분들을 부각시켰다. 최근까지 CIS내의 가장 낙후된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공화국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서구석유가스회사들의 관심은 이들 지역에 쏠리고 있다. 서구회사들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법적, 관료적 혼란 때문에 러시아 지역의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공화국들(Central Asian Republics : 이하 CARs)은 러시아를 대신하여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석유·가스의 매장량

중앙아시아의 추정 석유매장량은 거의 200억톤에 달하며, 이것은 CIS전체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가스는 약 6400만 입방미터에 달하고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중앙아시아의 석유매장량중 카자흐가 전체의 약 86%를 차

지한다. 한편 투르크메니 가스의 43%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카자흐의 가스 부존층에는 생산하고 다루기에 꽤 비용이 많이드는 고유황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매장량을 전체적 시야로 보면 카자흐의 추정매장량은 서유럽의 전체 확인 매장량에 필적한다. 또한 투르크메니 천연가스는 캐나다의 매장량과 맞먹는다. 키르기즈, 타지크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이들 공화국들은 소비에트 시기에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중앙아시아의 상당한 석유와 가스 매장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많은 서구회사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다. 앞으로 10년이상 이들 매장의 잠재적인 개발은 전세계 석유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적은 노력으로 순 석유수출국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시장으로의 즉, 유럽, 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석유수송의 문제가 우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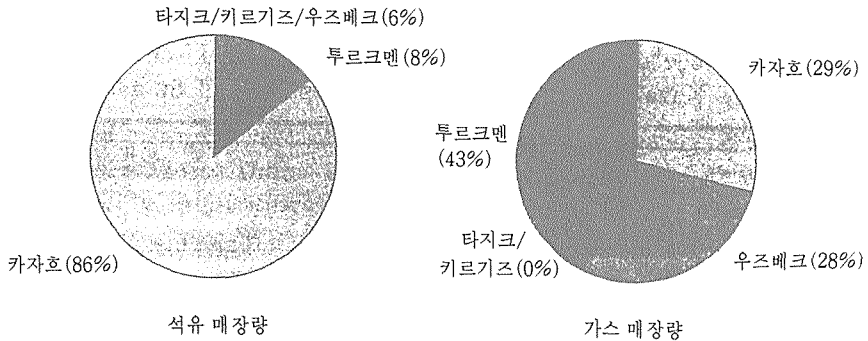
<표-1>

CARs의 석유·가스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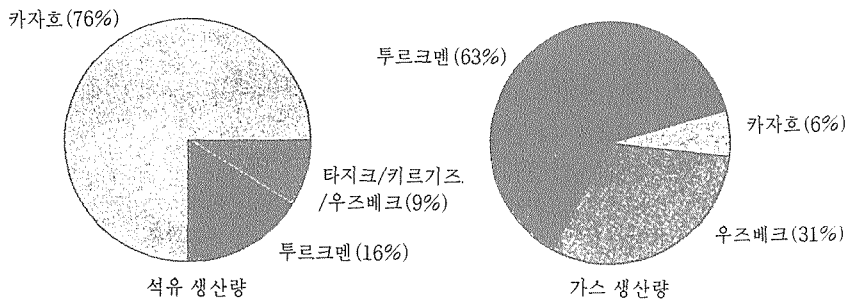
	석유 (확인·추정매장량)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톤)	(가채년수)	(10억입방미터)	(가채년수)
카자흐	2140	80	1830	232
투르크메니	210	39	2720	32
키르기즈	25	250	6	60
타지크	5	50	7	70
우즈베크	115	42	1820	43
계	2495	71	6383	48

<그림-1>

CARs의 석유·가스 매장량



1991년 CARs의 석유·가스 생산



<표-2>

CARs의 석유·가스 소비 ('91)

(단위 : 천b/d)

	석 유			가 스		
	생산	소비	순교역	생산	소비	순교역
카자흐	530	430	100	130	225	(95)
키르기즈	5	55	(50)	"	35	(35)
타지크	"	50	(50)	"	30	(30)
투르크멘	110	200	(90)	1395	135	1260
우즈베크	55	205	(150)	695	565	130
계	700	940	(240)	2220	990	1230

») 너무 양이적어 수치로 표현 곤란

2. 석유교역

집단으로서 CARs는 석유 생산국이자 또한 석유소비국이다. 이 지역은 카자흐가 최대석유 생산국, 우즈베크가 주

요석유 소비국으로서 순석유교역 부족량이 24만b/d이다. (<표-2>참조) 카자흐는 러시아 다음으로 CIS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고 CARs내에서만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투르크멘은 자체 필요량의 55%를, 우즈베크는 약 27%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키르기즈와 타지크는 국내소비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순수 석유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의 생산증가와 투르크멘과 우즈베크의 예정된 개발은 이들 지역의 소비수준에 이르게 되어 몇년 이내에 수입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의 잉여석유와 우즈베크와 같은 곳의 새로운 석유의 생산에 의해 이 지역은 21 세기초에 순수 석유수출국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여타 주요 석유생산국과의 연계는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 중앙아시아의 석유수출 균형에 있어서 이들 나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러시아의 석유생산감소에 대신하여 특별히 석유 정제시설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 투르크멘, 우즈베크에 정제를 위한 원유를 제공할 것이다.

별써 이란은 카자흐, 투르크멘, 우즈베크와 석유교역협정을 체결 했다. 뿐만아니라 우크라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같은 CARs의 여타 국가들과도 석유교역 협정을 체결 했다. 이들 교역의 본질은 직접적인 석유공급협정에서 생산을 위한 원유의 교역과 석유와 가스의 수송협정으로 바뀌고 있다.

3. 천연가스 교역

이 지역내의 가스공급자로서의 투르크멘의 역할은 다른 CARs 모두에게 중요하다. 게다가 투르크멘의 가스 수출은 CARs과 이웃해 있는 지역의 소비에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의 수송과 수출조직망을 이용한 서유럽

으로의 수출은 CARs의 경화공급에 공헌하고 있다.

카자흐는 천연가스 전체필요량의 약 58%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우즈베크를 경유하여 투르크멘으로부터 들여와 국내소비의 균형을 맞춘다. 우즈베크는 국내 가스필요량을 넘어선 잉여생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내에서 두 번째이며 소량의 가스를 키르기즈와 타지크로 수출한다. 두개의 주요한 가스관이 투르크멘과 러시아의 가스를 카자흐의 서쪽으로 수송하고, 우즈베크의 가스를 카자흐의 남쪽으로 수송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120만 b/d 이상을 수출한 주요수출국들이다. 잉여생산량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고압수송수단을 통하여 수송되고 다시 CIS의 여러공화국들로 재분배된다. 생산량중 일부는 유럽의 바이어들로부터 경화를 받고 구소련 외부지역으로 수출된다. (1992년에는 113억 입방미터)

4. 공화국별 에너지 사정

(1) 카자흐

카자흐는 러시아 다음으로 CIS내에서 두번째로 큰 석유생산국이자 지난 십년동안 계속해서 석유생산량이 증가해왔다. 카자흐의 석유생산은 카스피해 북부지역의 개발이 몇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기세틀리흐, 엠바, 부차진스 카야 이 세지역이 주종을 이룬다. 러시아로부터의 순 석유수입량이 1990년에 300만톤이었던 카자흐는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제시설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순석유제품 수입은 전체 소비량의 약 17%이다.

이 확장계획은 현재 36만 b/d 인 것을 약 십년내에 80만

<표-3>

CARs의 주요 에너지 수요 ('91)

(단위 : 천 b/d)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계
카자흐	430	825	225	30	0	1510
키르기즈	55	45	35	45	0	180
타지크	50	10	30	80	0	170
투르크멘	200	10	135	5	0	350
우즈베크	205	75	565	60	0	905
계	940	965	990	220	0	3115

b/d의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3개의 정유공장의 현대화와 북서쪽의 카라차냐와 카스피해 근처의 망기스타우의 "Greenfield" 정유공장의 완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망기스타우 정유공장은 부짜치반도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를 다루고, 초기의 생산량은 6만 b/d가 될 것이다. 미쓰이, 미츠비시, 포스터윌러등 수많은 외국 회사들이 정유공장 건설에 대한 입찰을 제출해 놓고 금년말에 있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르네이, 침켄트, 파프로타의 정유공장은 각각 3만 b/d, 6만 b/d, 15만 b/d를 증설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CIS내의 석유와 가스개발에 대한 서방세계의 참여중 카자흐는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 CIS에서 이미 체결된 두개의 조인트벤처는 둘 다 카자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 정부와 미국 회사 세브론과의 조인트벤처는 10년 이내에 텐지즈 지역에서 약 70만 b/d의 석유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텐지즈 지역의 석유생산은 4만 b/d이다. 텐지즈-세브론은 또한 이 계획의 일부로써 카스피해 북부의 코르레프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이미 체결된 또 다른 주요 조인트벤처는 북서지역의 카라카차냐 지역에서의 British Gas/Agip개발이다. 이 지역의 잠재 석유·가스생산은 가스의 수송수단이 아직 강구되지 않았지만, 금세기 말까지 계획되어 있다.

카자흐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80년대에 시작된 이후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1년의 생산은 카라차냐 지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11% 증가된

79억 입방미터를 기록했다.

국내적으로 생산된 석탄은 기본적으로 발전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발전 부문에의 석탄의 투입량은 지난 몇년간에 걸쳐 전체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다. 석탄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력부문에 있어서의 천연가스의 소비는 1980년대 중반이후로 평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다.

(2) 우즈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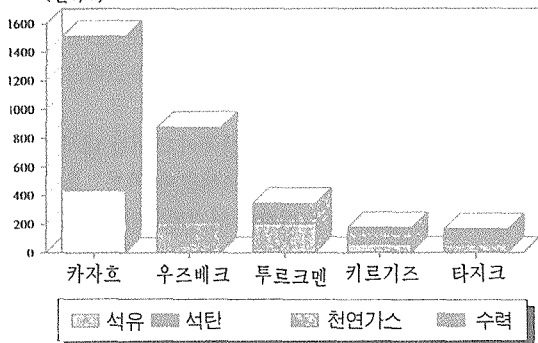
최근에 발견된 페르가나계곡의 밍부라호지역은 초기에 30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십년 이내에 우즈베크를 순석유수출국으로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이미 상류부문에서 서방기업들과 조인트벤처에의 참여에 성공한 우즈베크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방의 기술과 재정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중이다.

우즈베크의 국내원유생산은 우즈베크의 정유공장에 약 1/4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CARs의 여타 지역인 카자흐, 키르기즈, 타지크로부터의 원유수입은 7%정도이고 나머지 68%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온다. 1990년에 수입량은 중앙아시아의 50만톤을 포함하여 약 550만톤에 달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했다.

1992년 우즈베크로 러시아가 공급한 원유량은 38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점유율이 31%나 떨어졌고 1993년에 계약된 물량은 꼭 300만톤으로 추가적으로 21%가 떨어졌다. 우즈베크는 실제로 석유제품 수입국이다. (주로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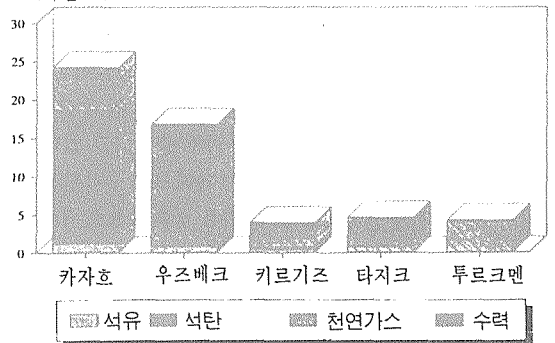
<그림-2> CARs의 에너지 소비 ('91)

(천b/d)



<그림-3> 발전용 연료 현황 ('91)

(백만toe)



아로부터 연료유와 카자흐와 러시아로부터 휘발유와 가스, 디젤유를 수입) 페르가나 정유공장의 산출량은 필요량의 약 60%정도를 공급한다.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투르크멘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약 42,000 mln 입방미터에 이르러 소비는 전적으로 국내의 생산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러나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투르크멘에서 수입되고 또한 카자흐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석탄 산업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석탄소비중 국내생산 비중은 아주적다.

우즈베크의 전력은 거의 3/4 정도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소비의 40% 이상이 전력부문에 투입된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효율성은 28%보다 낮으며 이것은 CIS전체 평균보다 더 낮다. 이러한 이유는 발전시설이 오래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3) 타지크

타지크는 석유정제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석유생산량도 적은 양에 불과하다. 석유의 필요량은 거의 대부분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1993년에는 우즈베크로부터 들어오는 석유제품이 우즈베크 국내 부족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가격에 의한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의 감소와 다른 공화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석유제품의 불균형 때문이다.

1992년에 연료유 30만톤을 이란에서부터 들여왔을지라도 석유의 부족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1993년에는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이란의 추가적인 석유 공급이 있었다.

가스와 석탄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즈베크의 에너지정책의 주요특징은 수력발전의 공급이다. 수력발전은 전체에너지소비의 45% 정도를 맡고 있고 전력부문에서는 85% 정도가 수력 발전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CIS내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타지크가 수력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생산국이고 또한 다른 공화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다른 공화국으로의 전력수출이 계절에 의해 심한 영향을 받기때문에 타지크는 이용이 가장 적은 기간인 여름 몇달

동안에 국내 수력발전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이란과 파키스탄으로의 전력공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4) 키르기즈

그렇게 많지 않은 55천 b/d의 석유수요는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은 1992년에 엄청난가게 늘어난 수요로 인해 석유의 부족이 현실로 나타난 해이다. 중앙아시아 정유공장으로의 러시아의 원유공급부족은(특히, 우즈베크) 키르기즈의 석유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공화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체첸니아의 코카서스 공화국의 그르즈니 정유공장에서부터 공급된 휘발유, 디젤유, 연료유 1만톤 도입계약이 체결됐다. (키르기즈의 두번째 수송로는 우즈베크로 전환되었다.)

적은양의 석탄이 수입되고 있는 반면 가스의 사용은 전적으로 투르크멘과 우즈베크에 의존하고 있다. 키르기즈의 가스소비량의 대부분은 전력생산과 산업부문에 소비된다. (전력에 약 49%, 산업부문에 약 39%)

주로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키르기즈의 전력생산부문은 국내필요량을 넘어서서 상당한 잉여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키르기즈를 순전력수출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한 부분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대한 상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키르기즈의 수력발전 시설은 현재 전체 전기용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5) 투르크멘

1991년에 투르크멘의 원유생산은 11만b/d였고 석유 순수출국이 되기에 충분한 정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잉여제품(주로 연료유, 가스, 디젤유)은 러시아, 우즈베크, 키르기즈로 수출되고 있다.

투르크멘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이들 대부분은 수출되어진다. 주요 수출국은 우즈베크와 카자흐를 경유한 러시아이다. 가격마찰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우크라이나와의 가스공급협정은 현재 체결되었고, 1993년에는 285억 입방미터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투르크멘이 가스 수출에 있어서 국제가격에 따르는 않

지만 우크라이나와 맺은 가격은 1000 입방미터당 3천루블이 넘어 러시아산 가스가격의 두배이다. *Gazprom Contsern*의 일부가 아닌 투르크멘은 가스수출에 있어서 국제가격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현재 유럽 평균 가격은 1천 입방미터당 약 90달러이고 탈러 대 루블의 비는 1 대 50이다. 그래서 투르크멘은 가스 1천 입방미터당 약 5만루블의 수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멘의 수입업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5. 주요 에너지 소비

(1) 지역적인 전망

1991년에 이 지역 전체의 반 정도를 소비한 카자흐는 이 지역의 주요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공화국들의 주요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카라간다와 에키바스투즈에서 생산된 석탄으로부터 얻고 있다. 이것은 산업과 수송 부문에 소비되어진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1991년 약 2천 70만명) 우즈베크는 이 지역내의 두번째 에너지 소비국이다. 우즈베크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5%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고 일부는 투르크멘으로부터 수입한다. 우즈베크의 가스소비량의 45% 이상이 전력생산에 투입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산업과 국내부문에 쓰인다.

천연가스는 이 지역의 주요에너지 소비의 약 1/3을 차지하고 나머지 2/3는 석탄과 석유이다. 전부해서 중앙아시아의 전체에너지 소비는 구소련에서 약 11%를 차지한다.

(2) 에너지 정책

중앙아시아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엄밀하게 만들어짐 에너지 정책은 거의 없지만 현재 일시적인 평가기준은 집행되고있다. 첫째로, 이 지역의 대부분 공화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연료공급의 의존을 줄여 나가자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는 주요한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그러나 지리적, 사회간접시설의 실제 상황은 여전히 이 지역을 다른 공화국들로부터 석유와 가스의 수

입을 하도록 하고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교역시설을 건설하기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다. 늘 이러한 계획은 석유와 가스의 수출을 위한 송유관 사업과 저장시설같은 자본집약적인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시장이 형성되어야한다. 많은 부문에서 특히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더 이러한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정책이 연료공급의 다각화된 자원과 잉여연료를 위한 다각화된 시장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장기목표로 세우는 것이다.

(3) 정치적 요인

CARs의 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를 하고 있을 지라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정치적 반대집단들이 이슬람원리주의에 기초한 그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즈베크에서는 대통령인 이슬람 카라모프가 최근 '이슬람의 물결'로 되돌아 가자는 '국제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즈베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발흥기운은 우즈베크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크의 석유생산지역은 우즈베크 유일의 정유시설이 있는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페르가나는 1992년 발견된 망부라크 유정같은 거대 석유매장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타지크에서는 현재 대통령에 있는 이마말리 라흐마노프의 구 공산당과 이슬람집단간의 장기 투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법령이 카자흐인들에게 유일한 공식적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제함으로써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카자흐에는 전체인구의 약 절반보다 조금 적은 620만명의 러시아민족이 살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불안감을 즉 2류시민계급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될 두려움을 시민투쟁과 불온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몇몇 공화국들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아직도 존재한다. 예를들어 식수문제로 인한 타지크와 우즈베크 사이의 분쟁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6. 맺는말

CIS내의 CARs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지배하의 경제상황을 현재 잘 대변해주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에 많은 공화국들을 지배한 면화 단일문화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불행히도 그땅에 대한 집중적인 발전은 지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이 유일한 작물이 계속해서 재배되어 왔다.

CARs는 그들 자신이 현재 식민지배의 말기와 어수선한 독립의 초기단계에 있던 1950년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도전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 반면에 새로운 독립국가인 CARs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경쟁적인 국제 환경에 대하여 경제와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행했던 약 3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행했던 지속적인 실수나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CARs는 지금 어떠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모형이나 따라야 할 원칙없이 그저 'Tabula Rasa'란 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모범적인 나라들에 의해 만들어진 올바른 과정을 되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이것은 발전을 위한 모형으로써 CARs에게 중동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언어, 문화, 종교의 면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이 공화국들과 중동국가들 사이에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자원부국이고 이것은 중동 특히 걸프연안국가들이 석유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동내부에서조차 경제정책과 정치구조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U. A. E, 이라크, 이란, 시리아, 바레인, 예멘, 요르단을 비교해봄으로써 관찰할 수 있다.

CARs는 벌써 다른 나라들이 행했던 독립의 과정을 밟고 있다. 즉 그들의 재산목록을 조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이들 공화국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하는가에는 몇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 ① CARs는 비록 공평히 분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석유와 가스가 광범위하게 부존되어 있다.
- ② 탄화수소자원의 개발 특히 석유는 투자에 대하여 상당히 빠른 보상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결과는 빨리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제공한다.
- ③ 석유와 가스자원의 개발은 국내고용의 효과와 관련산업 기술발전의 가능성과 서구회사의 참여를 통한 기술이전의 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 ④ 석유와 가스자원의 개발은 경제에 순이익을 제공한다. 단기간에 있어서는 석유의 개발은 수출을 통하여 추가적인 외환수익과 수입감소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높여준다. 장기에 있어서는 직접수출과 국내적으로 소비되는 석유의 대체가능성을 제공하고 이것은 외환수입을 가져다 주는 해외시장도 개척하게 할 것이다.

별써 CARs는 지역적 관계를 기초로하여 경제와 교역에 도움이 되는 이웃나라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란, 파키스탄, 터키, 아프카니스탄뿐만 아니라 CARs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은 CARs가 이 지역의 공동체라는 감정과 소비에트 정권하에서는 이를 수 없었던 동질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CARs간의 이러한 형태의 관계발전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여러나라들에게 특히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사이에서 지정확적으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우선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CARs의 석유와 가스산업은 특히 러시아같은 다른 CIS공화국들에 비해 서구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적당한 법령과 세제의 제정, 보다 안정된 정치상황, 이익의 자국송환문제, 국제시장으로의 접근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다. 만약에 이들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진다면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중앙아시아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 <PETROMIN '93. 9월호, 김영철 옮김>